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57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7년 4월 2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을 넘어서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I. 저출산 대책과 출산 결정

저출산 대책으로의 육아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모습을 '행복'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구축을 통해 출산율은 회복 가능함

- 인구절벽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강화 되었으나 출산율 증진이라는 효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보육을 비롯한 육아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작 영유아 부모의 체감 정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 저출산 현상은 사회문제이나 출산 결정은 개인의 선택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 인식 및 가치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육아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 출산 결정은 부부가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의 모습을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설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
 - ▶ 출산율 회복을 이끌어 낸 국가들의 공통점은 '출산과 양육'에 사회 전체가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임.
-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정책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관련 정책의 저출산 극복 기여 정도를 진단해보고, 부모들이 경험하는 우리 사회 육아문화에 기초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는 어떠한가 구제화할 필요가 있음.

II.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정책 이용과 저출산 극복 기여 정도 진단

현재 육아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실행되나 그 이용과 만족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음

-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양육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 아이돌보미, 시간제 보육 등 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기관 지원, 부모상담 및 교육, 건강관련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으나, 그 이용과 만족도는 높지 않음(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내용 중 발췌)
 - ▶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등의 이용 비율이 높았고, 국가예방접종지원을 제외한 정책의 만족 정도는 '대체로 만족함'에 못 미치는 수준임.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 2016) 와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의 조사결과를 재분석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영유아 부모의 관심은 자원확대와 비용지원 상향조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주된 관심은 지원 확대와 비용지원 상향조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 ▶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육아지원 정책 중 ‘비용지원’ 정책이 필요도(59.8%)와 만족도(43.7%)가 높다고 하면서도 개선에 대한 요구(7.3%)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육아지원정책 영역별 필요도, 만족도, 개선필요 정도

단위: %(명)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정보·교육 지원	건강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필요도 높은 제도	59.8	19.0	11.8	3.9	2.6	1.9	1.1	100.0(1,302)
만족도 높은 제도	43.7	38.3	7.1	4.5	3.5	1.5	1.3	100.0(1,302)
개선이 필요한 제도	47.3	21.9	18.2	4.4	4.0	2.2	2.1	100.0(1,302)

주: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p.240-243 내용 중 발췌 구성함.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302명의 응답결과임.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현재 정부가 육아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용과 서비스 지원 중심의 현 육아지원 정책과 출산율 제고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인식함.

〈표 2〉 육아지원 정책에의 진단

단위: 점

항목	평균(표준편차)
1) 정부는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6(0.77)
2) 정부에서 마련한 육아지원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1.7(0.75)
3)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들이 최근 발전했음을 체감한다.	2.2(0.81)
4) 정부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현재 보다 더 늘려야 한다.	3.3(0.77)
5) 정부의 육아지원정책들로 인해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2.5(0.84)

주: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p.238 〈표V-3-1〉 내용 중 일부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지닌 진술에 영유아 어머니 1,302명의 4점 척도 동의정도 평균임.

육아지원정책과 출산율 제고와의 관련성은 낮게 평가함

저희 첫째 키울 때는 지금 초등학교이니까 솔직히 그 보육료 지원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받으면 이것도 좀 더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때 생각하면 (정부가) 많이 생각해주고 있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유아 어머니 B).

사실 저는 세금 낸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정책 수혜를 다 받은 사람 중 하나예요. 임신해서 고운맘카드부터, 어린이집 이용할 때도...2012년 0-2세 무상보육 되는 시기에 딱 맞아서 그때는 정말 야호하고 좋아라 했는데 그 때 딱 몇 달 좋고 이후는 비용지원이 계속되어도 부족하다 느끼게 되요(학계 교수 B).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누구나 주는 거니까 내가 받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누구나 공짜로 주는 것은 만족도가 높을 수 없잖아요. 나만 특별히 준다고 해야 만족이 높은데...(학계교수 D).

III. 양육자가 표현하는 우리 사회 육아문화

- 영유아 부모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자녀양육은 가치 있지만 힘들고, 처음 하는 역할이라 자신 없으며,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서운함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구체화 됨.

애 키우는 일은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나가서 돈 버는 거보다 열배, 백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사일이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데 진짜 내 아이 보는 거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도시 영아 부모 C)

저도 아이들한테 받는 기쁨이 크긴 하지만 육아 자체가 너무 힘들고, 혼자서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혼자 이겨내야 될 게 많으니까. 힘든 점이 있죠. 항상 힘에 부치고... (대도시 영아 부모 E)

아기일 때 태어난 지 얼마 안됐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기는 갑자기 막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대도시 유아 부모 G)

남편하고... 애 한창 키울 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자기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인드 자체가 남편은 부탁하면 해주는 거고 뭐 이런 게 저는 엄청 서운하고...(대도시 영아 부모 C)

●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양육 지원, 양육의 가치를 강조하는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지적함.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원 공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잘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육아와 관련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육아 관련 정보 같은 게 가정으로 바로 배포 된다가나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육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면 딱 들어가면 연령별로 정보방이 있다든지 이러면...(대도시 유아 부모 F)

아이 어릴 때 한 살에서 두 살 사이에 그때 육아멘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미리 키워봤던 사람하고 상시 대화할 수 있었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여직원들끼리도 애가지면... 왜 우리한테 일을 더 많이 주려고 저렇게 버티고 나오느냐고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있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대도시 취업모)

● 조사결과와 면담내용을 토대로 영유아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와 고려되는 대안들, 바람직한 육아문화 구성을 위한 지향점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음.

부모 지원 요구	원인	대안마련	지향점
자신감 회복 (양육역량 강화)	-처음 해보는 역할 -양육 지식 부족 -양육 관련 정보 부족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	-부모 양육역량 강화 기회 확대 다면적 부모교육 제공 (대한민국 부모학교 : 육아종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정보 제공기회 확대 (온라인 정보 체계화, 면대면 정보제공, 육아정보자료집 구성 배포 등)	자신만만, 행복한 육아
육아 고립감 해소 (독박육아, 육아스트레스 해결)	-핵가족화로 가족 내 양육지원 인력부족 -아버지 양육참여 부족 -단독 육아 상황에서의 고립감 -육체적 어려움과 심리적 스트레스	-아버지 양육 참여 확대 위한 제도 (아버지 교육기회 확대, 육아휴직 및 일-가정양립 위한 제도 내실화) -양육 고립감 해소 및 육아 쉼표 제공 (육아 중심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아이돌보미 등 지원 제도 활성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가족이 함께 하는 육아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인프라 부족 -마련된 정책의 홍보 부족	-지자체 중심 육아지원 네트워크 강화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 가족이 즐길 공간 및 기회 제공) -다면적 육아정책 홍보방안 마련 (다양한 홍보수단 개발, 수요자 눈높이 안내, 정례적 소통의 장 마련)	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육아

[그림 1] 정책수요자의 요구 반영한 육아문화 형성 개념도

주: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 p.144.<그림 VI-1-1>임. 영유아부모 1,203명 설문조사와 77명의 심층면담 자료를 토대로 지원 요구와 원인을 도출함.

- ▶ 영유아 부모의 요구는 처음 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회복, 육아고립감의 해소,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로 수렴됨.
- ▶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육아문화의 지향점을 ‘부모의 자신감이 회복된 행복한 육아’, ‘균형적 역할 분담을 통한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육아를 담당하는 가족을 전체 사회가 지지하고 함께하는 육아’로 구체화할 수 있음.

IV.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언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표어와 그에 따른 다분히 대중 추수적 입장에서 마련되어 온 비용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마주하며, 바람직한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타진과 가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표어와 그에 따른 다분히 대중 추수적 입장에서 마련되어 온 비용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마주하며, 바람직한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타진과 가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 ‘양육 = 부담, 어려움’이 연상되는 상황에서 ‘양육 = 즐거움, 행복함, 보람’으로 변화되도록 양육 가치 회복을 목표로 해야함.
 - ▶ “국가가 키워주겠습니다.” 보다는 부모역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를 사회 안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때임.

육아가 부모의 권리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0-2세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걸으면 기적 아닙니까? 말 못하는 아이가 말하고. 부모가 그 기적의 순간에 있어야지...사실 예쁜 짓을 하는걸 봐야 그 애가 미운 짓을 하는 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학계 교수 F).

자녀양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전달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함

-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육아지원이 이루어짐을 통해 자녀를 키우고 싶은 사회적 분위기, 출산·육아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 ▶ ‘자녀’, ‘자녀를 기르는 일’에 사회가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프랑스에서 애를 가지면 국가가 편지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당신의 임신을 축하한다.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지원해주겠다.’ 는 말이 있어요. 함께 키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지요(학계 교수 E).

자신감을 갖고, 가족이 함께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사회가 더 붙여 함께 지원하는 육아문화의 형성이 필요함

- 함께 키워가는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 자신감 회복을 위해 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같이 영유아 부모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거점형 영유아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언함.
 - ▶ 아버지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아버지 양육역량강화와 더불어 이미 마련되어있는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의 사용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첫 부모시기를 위한 면대면 정보제공 및 양육지원 기회 마련이 필요함.
 - ▶ 사회가 자녀 양육 과정의 어려움과 가치를 공감하며 지원하고 있음을 영유아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권미경 부연구위원 mkkwon@kicce.re.kr